

도내 휘발유 값 6주 연속 하락

석유공사 주유소 가격조사결과... 11당 1388.9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저렴

도내 주유소 휘발유 값이 6주 연속 하락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가격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2주 마감 기준으로 전북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11당 1,388.94원이다. 전국 평균유가 1,408.66원 대비 저렴한 편. 전북지역 휘발유 가격이 1,300원대로 진입한 것은 올해 1월 1일 1,389원 이후다. 또 지난 6월 1일 1,401원대로 올랐지만 8월 7일 다시금 1,300원대로 떨어졌다. 특히 전북은 지난 3월 2일 1,332원으로 단기 최저점을 기록해 휘발유 차

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원유 생산량 감소 등의 이유로 국제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5월 2일 1,358원대를 기록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달 2일에는 1,420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우 역시 휘발유처럼 하향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8월 16일 기준 1,185.52원으로 전국 평균유가 1,204.51원보다 저렴했다. 지난 3월 1일 1,076원으로 가장 저렴했지만 7월초에 접어들면서 1,214원대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8월 1일까지 한달 동안 1,200원대를 유지했지만 2주째를 접어들면서 다시금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휘발유 값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전주시 여의동에 위치한 착한 2주유소로써 1,284원대를 기록했다. 또 경우 값이 가장 저렴한 곳은 고창군 고산주유소이며 1,09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 공격 등으로 일부 상승했지만 이전 국제 유가와 환율 하락분 반영 등으로 국내 유가 하락세는 당분간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한기위 선물 미리 준비하세요. 농협유통 직원은 16일 오전 서울을 양재동 하나마트에서 인삼머그리 추수선물 대축제 한기위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전북개발공, 사랑의 생수 3000명 지원

무더위에 지친 택배기사, 집배원, 경비원, 미화원 등 응원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연일 무더위에 지친 택배기사, 집배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응원하기 위해 '사랑의 생수' 3,000병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사랑의 생수'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운영중인 6개 임대주택에 단지별로 500병씩, 총 3,000병과 아이스박스가 함께 전달돼 관리사무소 1층 또는 택배실 입구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연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현장업무를 하느라 고생하는

분들이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여유 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게 안타깝게워 약속하지만 시원한 생수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경영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연중 사내 나눔봉사단 운영, 농촌지원활동, 소외계층 후원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대한민국 봉사대상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신광영기자

'건강부회 행정 표본' 홈앤쇼핑 반발

중소기업청,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중소기업청이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을 두고 홈앤쇼핑 측이 '건강부회 행정의 표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중소기업청 강 대표이사를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강 대표이사를 상대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중소기업청에 통보했다. 중소기업청은 홈앤쇼핑이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화권 획득 과정에서 하나투어와 컨소시엄을 이뤄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 지분을 청산한 점을 문제삼았다. 면세점 사업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분을 청산해 중소기업청과 주주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강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청동조항법 위반 ▲상법상 특별 배임 ▲민법상 임무해태 ▲형법상 배임 ▲특정 경제범죄 기중차법 등의 혐의를 받고 있

다. 중소기업의 이번 조치를 두고 홈앤쇼핑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SM 면세점 사업에 부자를 했을 경우 더욱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 홈앤쇼핑 측 주장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 2014년 8월 에스엠이즈 듀티프리(SMEs DUTYFREE)가 설립될 당시 자본금 15억원 중 4억원을 출자해 26.6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과는 달리 하나투어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에 부자 부담 등의 이유로 출자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홈앤쇼핑 측은 부자 철거를 결정한 시점이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7월보다 4개월 빠른 시점인 3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뉴시스

전북테크노파크 'e-커머스드림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참여

만19~39세 이하 청년대상... 온라인 쇼핑몰 창업 희망자 지원

전북테크노파크(백두옥 원장)가 'e-커머스드림 청년장사꾼 프로젝트(이하 e-커머스드림)'에 참여기관으로 활동한다. e-커머스드림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네이버(주)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사업이다. e-커머스드림은 만19~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청년 지원자 중 최종 18명의 합격자가 선발됐고,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5개 교육장에서 5일 간의 지속적인 창업교육을 받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소기업 관련 전문 컨설턴트인 NSC(Naver Shopping Consultant)의 실시간 코칭, 네이버 쇼핑 플랫폼 노출, 수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 교육 신설, 창업스쿨 오프라인 교육 시 창업 실무과정 강화(쇼핑몰 디자인, 사진촬영, 마

케팅 전략 등), 소기업 제작·운영 시 네이버 쇼핑 플랫폼 노출 횟수 증대를 지원한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쇼핑몰 사범 제작·운영 이후 판매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판매이템의 참신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6인은 각각 1천만 원의 상금을 창업자금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구체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도, 소상공인 돕기위해 특례보증 지원나서

전북신용보증재단-경제통산진흥원-농협은행 업무협약 체결... 1년간 1.5%의 이자차액 보전

전북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경제통산진흥원·농협은행과 전북 사랑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농협은행에서 특별 출연한 10억원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총 2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도는 1년간 1.5%의 이자차액을 보전

해준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여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대출기간은 5년(1년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상으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금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도 유흥숙 경제산업국장은 "연 3%대의 대출금리에 도에서 1.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해 실제 소상공인의 부담금리는 1% 중환율대로 가능한 전망"이라며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